

교육

2년째 접어든 ‘SW기초교육’, “성장과 안정화에 중점”

김지원 기자 kjiw990327@knu.ac.kr
배지현 기자 flejtisdp@knu.ac.kr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전공자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소프트웨어(SW) 영역 교육이 최근 제법 익숙하게 학생들의 입에 오르게 됐다. 이에 우리대학은 지난 2017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되고,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SW기초교육’을 졸업필수이수 학점으로 지정했다.

SW중심대학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센터(IITP)가 ‘SW전문·융합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을 선도할 SW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SW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되었던 당시 조진성(컴퓨터공학) 교수는 “우리대학은 지속적으로 사업 선정을 위한 의지를 보여 왔다”며 “지금까지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우리대학은 컴퓨터공학과 정원증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신설, 교양교과 ‘소프트웨어적 사유’ 개설, ‘경희 SW 나눔봉사단’을 조직하는 등 지속적으로 SW관련 사업을 운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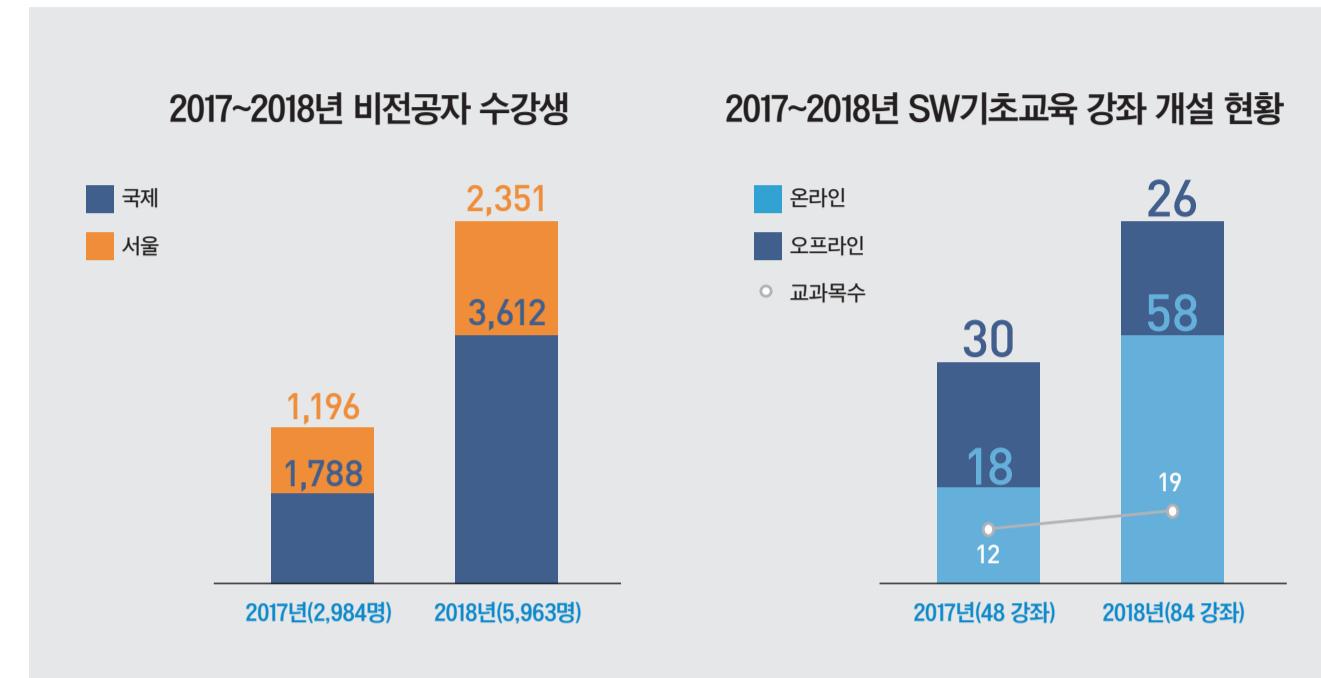
SW중심대학 사업 선정에 따라 우리학교는 4년에 걸쳐 총 70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자금은 SW교육을 위한 교내 SW인프라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학생뿐 아니라 우리대학 전체 학생과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SW기초교육 ‘코딩’·‘교양’ 두 개 영역 구성

지난해 SW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대학, 생명과학대학, 문과대학, 체육대학, 외국어대학, 공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평생교육원에 총 8개의 실습실이 개선 및 신축됐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앞으로도 단과대학에서 SW기초교육 실습 환경 개선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기초교육도 사업의 일환이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SW기초교육 과목 6학점을 필수이수해야 한다. 2017학년도 이전 학번도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SW기초교과는 실습이 있는 ‘SW코딩’과 이론 중심의 ‘SW교양’으로 구성됐다.

기획 초기 SW중심대학 사업단은 ‘두 영역에서 각 3학점씩 총 6학점 이수’라는 계



회를 세웠으나 이수학점과 영역이수방침은 각 전공별로 차이가 있다. 일례로 치과대학은 4학점을, 간호학과는 5학점을 수강케 하고 있다. 초기 기획대로 코딩과 교양 각 영역에서 3학점씩 듣게 한 경영학과를 제외하면 단과대학·전공별 졸업이수요건도 다르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각 전공 특성과 사정이 모두 다르다”며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 의문론 “비전공자 마인드 심기엔 충분”

SW기초교육은 이전부터 시행되던 단순한 SW교과목의 추가 개설이 아니었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SW기초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SW기초교육인 만큼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 역시 뒤따랐다. 실습실 부족, SW관련 교과목 전교생 수용,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에 대한 의문, 배분이 수영역에 분산된 SW교과목 등 우려가 제기됐다.

SW기초교육 기획 초기 서울캠퍼스(서울캠) 제49대 총학생회(총학)는 성명서를 통해 “공간과 실습 전용 강의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SW중심대학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당시 SW중심대학 사업단은 “과목 대부분이 기존 개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 강의 개설로 강의 부족과 대형 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SW기초교육도 사업의 일환이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SW기초교육 과목 6학점을 필수이수해야 한다. 2017학년도 이전 학번도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SW기초교과는 실습이 있는 ‘SW코딩’과 이론 중심의 ‘SW교양’으로 구성됐다.

기획 초기 SW중심대학 사업단은 ‘두 영역에서 각 3학점씩 총 6학점 이수’라는 계



지난해 3월 SW기초교육 설명회가 외국어대학에서 열렸다.

실제로 지난 2018학년도 첫 운영에서 ‘소프트웨어적 사유’ 등 기존 배분이수교과를 비롯해 각 단과대학 기존 교과목 중 일부가 SW기초교육으로 지정됐다. 또 2017학년도 운영됐던 SW관련 교과목과 비교하면 오프라인 강의는 30개에서 26개로 줄고 온라인 강의는 18개에서 58개로 대폭 늘었다.

SW관련 교과목이 배분이수영역의 핵심인 ‘선택’에 위배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SW기초교과는 배분이수영역에 속해있

다. 배분이수 7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자유

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었던 반면 2018학년도부터는 SW기초교과 수업이 포함된 영역을 우선 고려해야 해 영역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고려대 등 타 대학에서는 특정 강좌를 지정해 수강하게 한다”며 “오히려 배분이수영역에 다양한 SW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진로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했다. 온라인 강의

를 개설하면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SW기초교육이 기대하는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SW기초교육의 목표는 SW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래 목표인 비전공자 학생이 SW를 접하고 SW마인드를 갖게 하는데 온라인강의는 부족함이 없다”며 교육목표와 방식이 부합함을 강조했다.

SW기초교육 5,963명 수강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SW기초교육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이를 수강한 학생은 5,963명이었다. 필수이수 대상인 2018학번 수강인원은 1,313명으로, 필수이수 학번이 아닌 2학년 1,943명, 3학년 2,011명, 4학년 2,621명이었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이 결과에 대해 “필수이수 대상이 아닌 타 학년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는 것을 보아 학생들이 SW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가 SW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연(일본어학 2018) 씨와 장현주(일본어학 2018) 씨는 “요즘 초등학생부터 SW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SW기초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현주(국어국문학 2018) 씨는 “SW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학생들도 많다”며 “새로 지정된 필수이수인 만큼 SW기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비전공자 학생의 경우 실습수업보다는 이론 수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한 추가 강의 개설 필요성을 덧붙였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2019학년도 SW기초교육 운영에 대해 “2018학년도에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점은 없었다”며 “2017년에는 기획, 2018년에는 구축이었다면 2019학년도에는 성장과 운영방식 안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SW기초교육은 기초교육에서 끝나길 바라며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SW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다·부전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학생의 전공과 비전공을 존중하는 SW·다·부전공 운영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SW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전공을 빛낼 도구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2019-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자격

1) 2019-1학기에 정규학기 재학중인 신·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2) 2019-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 구제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3) 2019-1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국가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3. 신청자격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 할 것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신청기간 : 2019. 3. 4(월)~3. 31(일) 24:00 [4주간]

5.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용자신청 → 우정(가계) 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6. 자급기준

소득분위	자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100,000원
5	1,800,000원
6	1,500,000원
7	1,200,000원
8	600,000원

7. 지급일정 : 2019. 4. 12(금) 예정

8. 자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9. 우정장학 지급체외자

1) 2018-2학기 성적이 있는 2019-1학기 재학생

2)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우정장학 수혜자

3)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전액 장학 수혜자

※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4) 2019-1학기 휴학자

5) 2019-1학기 출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6)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10.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02-961-0045~0046)

2019-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문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2. 신청자격 : 다음 조건 충족자

1)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3분위인 자

※ 2019-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 구제자

※ 단, 등록금 학생이 2019-1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최종 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2)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장학금 수혜 가능

3. 신청기간 : 2019. 3. 4(월)~3. 31(일) 24:00 [4주간]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용자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19-1학기 학업계획서 작성(여러개 포함 2000자 이내) 및 저장

※ 신청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변경 → 개인계좌 등록도 완료할 것

5. 선발 및 지급일정

1) 신청자 자격검토 및 학업계획서 평가 : 2019. 4. 1(월) ~ 4. 23(화)

2) 선발결과 공지 : 2019. 4. 24(수)부터 “종합정보시스템-장학 조회”에서 개별결과 확인 가능

3) 장학금 지급 : 2019. 04. 26.(금) 예정

6. 지급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4,5,6,7월))

※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6월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7.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이체지급

8. 기타 유의사항

1) 학업계획서 평가

- 학업계획서에 대해 별